

신묘년 무생복락의 문이 열린다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오늘 천고(千古)의 광채가 신묘년(辛卯年)의 새해 아침을 장엄하니
집집마다 무생복락(無生福樂)의 문(門)이 열립니다.
하늘은 천기(天機)를 움직여 은화한 기운을 내리고
만물(萬物)은 신령함을 얻어 환희의 눈을 뜹니다.
산하대지(山河大地)는 제 몸매 아름다움을 풀어내어 화엄(華嚴)을 이루고
일초일목(一草一木)은 깨달음의 빛과 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에는 만법(萬法)과 집푸른 하늘이 잠겨 있고
그것을 풍진(風塵)속에 나투는 기용(機用)을 각자(各者) 갖추고 있으니
치우친 이는 자신을 바로 잡아 원만(圓滿)함을 이루게 하고
막히고 걸린 이는 일승(一乘)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게 합니다.

집착해 있는 사람은 비움을 통해 엄매에서 벗어나게 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내려놓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니
오늘의 고통을 이웃에게 자비(慈悲)로 활용(活用)한 사람은
무진번뇌(無盡煩惱)가 하나의 원광(圓光)이 될 것입니다.

농아버리던 여러분의 가슴에 일월(日月)이 빛을 발 할 것이요.
거두어 베풀면 무진중생(無盡衆生)이 평화(平和)로울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되니 불국토가 여기로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는 내가 없고
남을 먼저 생각하니 남이 나를 찾아주네.
소 등에 타고 앉아 잃어버린 소를 찾듯
하루 종일 마음 써도 그 마음을 모른다네.

시비분별 그만하고 관세음을 불러보라.
자비로운 마음 되니 불국토가 여기로다.
만고불변 저 태양이 고루 고루 비취듯
기쁨으로 하루하루 북 나누며 살아보세.

金銀未足圖千載며
玉帛焉能保百年하니
唯願檀那知此意하여
幸逢佛法樹良緣하라.

금은보화도 천년을 살게 할 수 없고
옥과 비단도 평생을 즐겁게 할 수 없네.
발자여 다행히 불법을 만났으니
좋은 인연으로 삼아야 하리라.

국태민안 남북평화를 기원합니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온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종단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나라의 부강과 국태민안,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불공을 해 왔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총지종이 창종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종단이 이처럼 알차게 발전한 것은 그 동안 모든 승직자와 교도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법에 의지하여 새 종풍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서 우리 종단이 사회를 지도하는 훌륭한 종단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불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제불보살의 가지(加持)가 두루 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묘년 새해, 행복과 희망이 나날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살을 예는 때서운 추위와 삭풍을 굳건히 견뎌 봄을 기다립시다. 봄 햇살의 따사로우움을 소중하게 여겨 줄 이는 인동의 세월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분명 새로운 의지와 마음가짐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나만의 행복일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오만과 독선은 겸양과 소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화합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편견과 집착으로는 세상을 치유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위정(各自爲政)의 자세를 버릴 때 세상이 평화로워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딛고 선 그 자리를 바로 보고 새롭게 한 걸음 내딛읍시다.

그러하여 새해에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싹이 움트기를 기원합니다.

그 희망의 싹이 내 이웃과 못 생명들의 서원으로 함께 하여 세상이 온통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타심으로 공동체를 실현하자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지난 경인년은 세계 경제의 악화로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단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에는 태고종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굳건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본분인 수행과 대중교화의 역할을 완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7백만 태고종도는 모두가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은 일불제자로 사회와 대중을 제도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사명을 가진 교역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이 막중함을 절실하게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태고종도로서의, 수행자로서의 자세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여러분!

새해에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깨끗이 불살하고, 새로운 각오와 신심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더욱 정진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맑은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利他)의 큰마음을 내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불자들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소통을 희망의 바라밀로 삼아야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그 동안 어려웠던 세계경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민족, 내 나라, 내 입장이 아니라 이기적 자아(自我)를 극복하고, 함께 공조하는 무아(無我)의 실천행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잊고 새해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집(我執)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져왔는지 되짚어보고 미움과 갈등, 분별과 차별이 새해에는 광

명으로 하나가 되듯 소통을 희망의 바라밀로 삼아 세상의 장애를 갈무리하고 다가를 번영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무척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왕원각대조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일도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경제안정과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회하는 한해를 맞이하자

진각종 통리원장 해정 정사

이전만 불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과 지혜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과거의 습(習)을 내려놓고, 새로운 한해의 희망을 이웃과 사회에 전하는 신묘년 한해의 주인이 되시길 서원합니다.

진언행자(불자) 여러분 일상의 삶에 집착하여 습(習)이라는 어리석음을 마치 경험의 지혜인양 안주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참회와 함께 머무름이 없는 심인의 참된 마음으로 삼라만상의 변화에 답하는 생명력을 수행과 실천으로 밝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 불교의 실천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긍정을 이끄는 원천이며 희망일 것입니다.

신묘년 한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으로 실천하는 시공(時空)의 주인이 되시길 다시금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이(不二)냐? 불이(佛耳)냐?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올해는 신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커다란 두 귀를 종국 세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나아갈 바를 결정합니다. 올 한해는 토끼의 귀 아니 부처님의 큰 귀처럼 두 귀를 종국 세워 세상의 소리를 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이(不二)정신을 불이(佛耳)정신으로 승화

하여 세상의 소리를 바로 듣고, 바로 알아차려 다툼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툼이 없어야 자비의 마음, 도우려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이(不二)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부처님의 귀 즉 불이(佛耳)가 되어봅시다. 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불교발전 위해 헌신하는 계기로 삼자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올해는 정통불교 총지종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

리우고자 개산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단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 2의 창종정신으로 종단의 발전과 이 땅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합니다.



함께 만들어 사는 새해가 되기를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衆生無邊誓願度(가이없는 중생 다 건지오리다)
煩惱無盡誓願斷(끝없는 번뇌 다 끊으리다)
法門無量誓願學(한없는 법문 다 배우리다)
佛道無上誓願成(위없는 불도 다 이루리다)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고 이제 윤희의 길목에서 새해 신묘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이며 성자필쇠(盛者必衰)는 윤희의 실상이며 그리하여 태어난 자는 태어났기에 가야하며 번성한다는 또한 쇠할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이 모두가 우리의 하는 바 짓(業)을 따라 연속한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볼 때 어느 한 순간 아슬아슬 하게 곡예를 계속하는 것 같은 생각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대지위에 고르게 빛을 발하듯이 사바세계에 떠오른 불법(佛法)은 본래 우리 속에 깃들여 있으나 불성(佛性)이 미몽(迷夢)에 쌓여 깨침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깨침을 등지고 혼침(昏沈)에 쌓였던 흐름을 걷어내고 그리하여 스스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진리 가운데 삶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해에는 다 같이 서원합니다. 도(道)이루기를 서원하고 대승보살행에 더욱 정진하는 새해로 맞이하여 우리의 원력(願力)을 성취시키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공덕을 회향하는 한해로 맞이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하여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불국정토가 될 것이며 함께 하는 부처님 자비광명은 온 누리를 포용하고 보은(報恩)의 실천도덕은 호국의 일념이 되어 자비하신 부처님의 맑은 미소와 함께 영원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 함께 합시다.

衆生沈昏久(중생침혼구)
背覺合塵塵(배각합진원)
自不解自縛(자불해자박)
游浪幾萬劫(유랑기만집)
중생들은 혼미에 빠진지 오래고
깨침을 등지고 티끌에 휩싸인 지 벌써 오래니
스스로가 자신의 속박을 벗지 못하고
그렇게 흐른 지 몇 만집을 흐르는구나.

진호국가불사에 매진하자

도훈 정사
진각종 총인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종단의 원로 큰 스승님을 비롯한 모든 스승님들과 신교도 여러 분들의 생활 속에 항상 삼밀관행으로 법열(法悅)의 환희심(歡喜心)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각 종단 대덕스승님의 법체(法體) 만안(萬安)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인사(人士)들은 국가의 안녕과 인류의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다른 청렴성(淸廉性)과 지덕(智德) 역량(力量)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철주야(不徹晝夜) 충심(忠心)을 다하고 계시는 불자제현(佛子諸賢)님에게 항상 불은(佛恩)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족(同族) 사이에서 발생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 진언행자를 비롯한 온 국민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진언행자는 모든 국민과 함께 발심(發心)하여 국가안보와 인류평화를 구현하고자 진호국가불사에 심혈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불자님들과 다양한 종교를 신봉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종지(宗旨)를 확립하고, 교법(教法)을 실천하여서 우주의 진리의 가호(加護)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상근(上根)상지(上智)의 입에서 큰 도량을 갖고 교화를 할 경우에 그 실천행을 방해하는 저항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저항요소의 마군을 함복받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굳센 의지를 갖고 신행(信行)하여 정토건설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힘써 꾸준히 노력하는 새해

법진 스님
선학원 이사장



순결과 평화의 상징인 토끼 해,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불자님의 가정에 화합과 안정 그리고 복덕이 구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래 무시무종(無始無終)이므로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 없지만 세간사에 있어서는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들의 발발을 살피고 옷매무새를 만지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설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 과거사와 미래사에 매달리지 말고, 각자 현재의 일(本分事)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합시다.

비록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해도, 게을러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힘써 꾸준히 노력할만 못하다(若人壽百歲, 懈怠不精進, 不如生一日, 勉力行精進). - <법구경> 술전품

나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바로 내 자신의 것, 신묘년 하루하루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로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